

[좌담회]

인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화

: 1948, 1993 그리고 2018 이후

- 대담 참석자
 - 박원순 (서울시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국인권학회 회장)
- 진행자: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 한국인권학회 부회장)

<편집자 주>

본 좌담은 2018년 12월 16-17일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2018년 서울 인권 컨퍼런스” 중 17일에 진행되었던 특별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대 인권의 발전에 분수령이 되었던 세계인권선언 제정 70주년, 그리고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25주년과 파리원칙의 유엔 채택 25년을 맞아 인권담론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인지를 모색한 내용의 좌담 기록이다.

이성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대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숫자 3개가 보이시죠? 1948, 1993, 2018. 다들 1948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무대에 나와 있듯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고요. 그런데 혹시 1993년 비엔나회의에 참석하셨던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딱 한 분 손드시네요. 그 당시에 28개의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

중 하나인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일하셨던 역사적인 산 증인이 한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25년이 지났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참석하셨고, 또 오늘 좌담에 오신 박원순 시장님도 비엔나대회에 참석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권 변호사로 참석했었고, 저도 비엔나 대회에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25년 시간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70년 전 세계인권선언과 25년 전 비엔나대회, 그리고 그것이 2018년 오늘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로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담 주제를 네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인권선언과 비엔나, 파리 원칙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난 25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 그리고 더 넓은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장님으로서, 국가인권위원장님으로서, 연구자로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순서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런데 워낙 다 아시는 분이어서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기념일과 관련하여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박원순 시장님, 비엔나에 그 당시 직접 참석하셨죠? 1993년에 가셨죠? 그런데 세계인권선언 때는 안 계셨죠?

박원순: 그때는 아직 안 태어났죠. (웃음) 제가 그 정도로 나이 들어 보여요?

이성훈: 아닙니다. (웃음) 조효제 교수님은 25년 전 비엔나 때에는 어디 계셨어요?

조효제: 제가 그때 영국에서 공부하느라 비엔나에 못 갔는데 그때 비엔나 다녀오신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셨어요.

이성훈: 그 당시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엔나가 끝난 다음에 방문했던 기억이 나고요.

최영애 위원장님은 1993년에 어디에 계셨나요? 뭘 하셨죠?

최영애: 그때 비엔나에 가는 NGO그룹들이 함께 규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비로 가야 돼서, 일도 바쁘고 돈도 구하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훈: 참여는 하셨는데 직접 가지는 않고 뒤에서 준비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비엔나에 대해 짧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데, 1948년도에는 아무도 여기에 태어난 분이 없겠지만 인권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그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조효제 교수님이 『인권을 찾아서』라는 세계인권선언 해설서를 쓰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어떤 계기로 그 책을 쓰셨나요?

조효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도서관 사이트를 뒤졌는데 한국어로 된 세계인권선언 관련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의무감이 들고 해서 내친 김에 한 권 썼습니다.

이성훈: 올해 70주년 개정판 같은 것 안 내셨어요? 오늘 잘 홍보해서 이 대답을 계기로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70년 전인데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그다음에 비엔나와 파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70년 전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효제: 정확히 다음 주 월요일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70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인권에서 참 뜻깊은 해이죠. 그런데 1948년 12월 10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복기해 보면 사실은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의 96시간이 전세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굉장히 역사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9일 파리의 유엔총회에서 집단학살을 금지한 제노사이드 협약이 통과됐고, 10일 밤에는 세계인권선언이 나왔습니다. 하루건너 12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그 해에 제주 4.3사건, 헌법 제정, 제헌 국회, 정부 수립, 여·순사건, 국가보안법 제정 등 인권과 관련해서 극히 중요한 이정표와 사건들이 숨 가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 분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되던 바로 그 순간에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고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설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반추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반도의 70년 모순을 끝내고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 자유와 정의, 평화의 정신으로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아주 상징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훈: 1948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최근에 영화 ‘1987’이 한국의 민주화를 다룬 영화라면, 어떤 감독님이 인권에 관해서 ‘1948년’이라는 영화를 국제나 국내에 하나 만들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0년 전은 너무 머니까 25년 전으로 돌아와서 박원순 시장님 어제 축하하실 때 비엔나에 참석하면서 다뉴브 강변에서 텐트에 계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비엔나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원순: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만, 부자 나라는 인권활동가들도 사정이 좋은가 봐요. 호텔을 다 차지해버려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뉴브 강변에 텐트를 짝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행이 거기에 며칠을 지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 하면 다른 가난한 나라의 인권활동가들, 또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예를 들어 몽골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좋은 기회를 언제 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을 그때 오히려 사귀게 된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때 비엔나선언의 기초문을 만들게 됐는데 제가 그 기안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유엔 시스템을 넘어서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완전히 인권을 새롭게 상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셨던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 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전쟁의 참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뭔가 과거 시대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반성 하에 유엔이 결성되었고. 그와 동시에 유엔을 결성하게 된 핵심이 두 가지이

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권 보장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단적 안보를 이루자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언한 게 세계인권선언이고, 그것을 구체화한 게 ICCPR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자유권규약), 그 다음에 ICESCR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사회권규약), 이 2개가 기둥이 돼서 세계 인권 발전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왔죠.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저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민간, NGO, 인권활동가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시민사회적 지향의 여러 제도나 기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NGO, 시민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선언한 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성훈: 그러면 1993년 대회에는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셨나요?

박원순: 저는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의 하버드 법대에 객원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있다가 비엔나회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청중 중에서 참석하신 분을 물어봤더니 노태훈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혹시 또 참석하신 분, 저기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의 전순옥 상임이사님 계신데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참석하셨죠?

전순욱: 예.

이성훈: 어떤 연유로 참석하셨어요, 그 당시에?

전순욱: 저는 그 당시에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훈: 그러면 다뉴브 강변에서 같이 텐트 생활하셨나요?

전순욱: 같이 텐트 생활을 했었죠.

이성훈: 텐트 동기시네요. (웃음)

전순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훈: 비엔나에 갔다 오신 분들은 텐트에서의 추억, 호텔이 아니라 텐트에서 기거하면서 한국의 인권을 고민하고 전 세계의 인권을 동시에 고민했던 아주 특별한 자리였던 것 같고, 저도 텐트 생활을 며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천정배 국회의원님께서 공동대표 위원을 하셨죠?

박원순: 예. 그리고 그때 김찬국 교수님, 연세대 부총장을 하시다가 상지대 총장을 하신 김찬국 총장님이 또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밖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 분이 우리한테 국이라도 먹이려고 비엔나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무작정 돌렸대요. 그래서 보통 Kim, Park, Lee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부에서 찾아서 전화를 돌렸더니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우

리한테 육개장을 끓여 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이성훈: 비엔나 커피 말고 비엔나 육개장이 그 당시에 또... (웃음)

그런데 비엔나가 6월이었는데 그 해 가을에 유명한 파리원칙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됩니다. 최영애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파리원칙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파리원칙이 어떤 건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애: 파리원칙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파리원칙은 1991년 파리에서 채택된 일련의 인권원칙을 1993년 12월 20일에 유엔총회 결의로 완전히 비준을 받았던 것을 말합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그리고 다원성, 활동내용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예방하고 구제하고 이것에 대해 대처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라고 그때부터 유엔에서 권고하게 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그것에 대한 감시, 정책 권고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훈: 그게 1993년인데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된 게 2001년이죠. 그러니까 8년 후에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파리원칙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그 후에 많은 나라들이 설립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나요?

최영애: 지금 122개국이 A등급을 받고 있고 B등급 33개국, C등급이 10개국인데 실제로 파리원칙에 부합되는 나라들에게 A등급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파리원칙에 굉장히 부합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러한 모습에 상당히 근접한 국가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훈: 그러면 한국은 시작부터 A 등급이었습니까?

최영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이 생기고 국제적 인권협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국가의 독립적 기구, 그 힘을 갖는 기구가 국가인권기구라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1993년에 비엔나에서 텐트에서 보내신 분들이 국가인권기구라는 것에 대한 권고, 개념 이런 것들을 갖고 귀국하셔서 당시 시민사회와 인권운동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위를 선거공약으로 걸게 되잖아요. 그리고 2001년에 국가인권위를 설립하게 됐는데 저는 참, 역사라는 게 우리가 그걸 상상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마음으로나마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장치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을 거쳐서 실체화가 돼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그리고 참, 이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은 얼마나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권한을 선물처럼 주면 독립성을 잃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저도 그때 아마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국가에 종속되기

보다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어쨌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산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상당히 보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어려워졌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여러 인권 사안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촛불시위 이후에 나온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시 민주 정부의 전통을 지켜서 개입을 하지 않고 최영애 위원장 같은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인권위에서 정부로부터 압력 같은 것 전혀 느끼지 않으시잖아요.

이성훈: 그런가요? 그런데 최영애 위원장님은 그전에 서울시 인권위원장으로 모시지 않으셨던가요?

박원순: 예. 제가 모셔보니까 아주 독립적인 분이세요. 또 제가 뭘 어떻게 해 주십사 요청한 적도 없어요.

이성훈: 여기에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두 분이 하고 계신데, 조호제 교수님께 질문할게요. 아무래도 인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인권 역사에 대한 책도 번역하셨는데 제가 방금 대화를 이렇게 정리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70년 전에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고, 국가가 한 거잖아요. 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한번 잘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냉전기간에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3년에는 국가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쪽 온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48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비엔나대회 때엔 냉전이 끝났고. 그래서 이게 2018년까지 오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의 주제에도 해당되는데, 국가가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미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인권이 중요해지는 경향, 이제는 국가의 독립기구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도 나서서 해야 되고 기업까지도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의제의 주체가 계속 확산되는데 이런 것을 인권의 큰 흐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조효제 교수님?

조효제: 저는 분명히 유엔과 국가, 이 두 주체가 양방향으로만 인권을 사고하고 상상하고 실천하던 방식에서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민간 이런 영역을 포함하는 식으로 인권 거버넌스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넓어지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추구되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인권 정책이 한국의 표준적인, 전반적인 평균보다 훨씬 앞서서 국가의 인권 전체 상황을 먼저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의 넓은 의미의 인권 거버넌스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권 통치 또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훈: 한국적인 게 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좋습니다. 최영애 위원장님.

최영애: 제가 서울시 인권위원장 출신이어서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인권위원회 그리고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인권이 어떻게 거버넌스의 원칙대로 움직이고, 어떻게 레짐을 만들어 가는지의 모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사실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지자체의 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현재

에 와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어쨌든 이런 관행 속에서 지자체장이 인권레짐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원순: 조효제 교수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중앙정부, 국가가 인권 침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인권의 흐름이 또 주안점이 그런 국가적 과제보다는 생활적 과제로 많이 넘어왔죠. 그만큼 지방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권의 보장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존중도시라는 것을 많이 주창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본래 우리 헌법상 노동3권이라는 게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현장에 가서 보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 노동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업자들도 잘 안 지키거든요. 중앙정부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근로감독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그 권한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노동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를 단속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정부, 지방정부가 할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났을 때 도시정부, 지방정부들의 인권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안하기도 했었지요. 사실 이게 전 세계의 현상입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정부 말고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시장들의 규약 (Mayors' Covenant)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수천 개의 도시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도 하

고요. 그다음에 OECD도 포용 성장에 관한 챔피언 메이어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지방정부, 도시정부들이 중요해진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게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함께 협력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준의 동질화 이런 것을 이루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훈: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되고 또 다른 주제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비엔나회의 때는 저희가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가서 많은 것들을 텐트에 살면서 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텐트로 가지 않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이번에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초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끼리가 아니라, 물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난민 등 여러 분들이 있지만 바깥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NGO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고 그런데 바깥에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 기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촛불 때에 외국에 굉장히 큰 감동을 줬는데 끝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만 얘기하고 아시아나 그 외 여러 개도국 등, 한국의 과거처럼 엄청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시민사회나 피해자들한테는 우리가 크게 관심이나 기여를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미래, 지금의 현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한국,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원회, 지방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 모두 해당되는 건데 조효제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효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시다만,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거나 앞으로 밟아갈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나누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이게 상호 간에 같이 득이 된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위선양용으로 또는 한국 모델을 외국에 수출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좀 장기적이고 간접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겸손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경험, 성취와 한계를 솔직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의 임무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과 영감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완전히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의 국제연대 사업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니다. 또 하나는 국제개발협력 요즘 코이카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프로그램 이런 데도 인권과 민주주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유엔이나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같은 곳과 협력해서 한국에 국제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국력이 커지고 민주화의 역동적 전통이 쌓인 나라에 유엔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권평화대학이라든지 유엔평화대학 한국 분교라든지,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대학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식의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남북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아시아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상설 교육기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

리면, 역시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게 최고의 민주·인권 교육입니다. 너무 인위적인 학술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같이 만나서 교류하고 여행하고 게임하고 토론하고, 같은 목표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논쟁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일종의 Peace-BnB 같은 식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젊은이 집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니고... 하는 식의 프로그램을 한번 서울시에서 시작해보시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자 여행상품이자 시민사회 국제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교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성훈: 박원순 시장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같이 드릴게요. 한국에서 올해 평창올림픽이 있었고 패럴림픽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가 서울올림픽 30주년이잖아요. 청중 중에서 일본에서 오신 분의 질문인데 내후년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가고 그 다음 번에는, 시장님이 평양정상회담에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평양과 서울이 공동으로 2032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특히 도쿄, 베이징, 서울과 평양, 이런 도시들이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평화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다는, 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셨는지요. 평양에 다녀오시면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원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사실은 제가 도쿄에 갈 때마다 올림픽 개최를 유치하는 표시 있지 않습니까? 엠블럼? 이걸 보면서 서울도 다시 유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왜냐 하면 도쿄도 이미 1960년대에 유치하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우

리도 88년에 했었는데 2032년 올림픽 정도는 서울시가 또 유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청와대나 통일부나 국정원 쪽에 요청을 했어요. 다음 남북정상회담 어젠다로 2032년 올림픽을 평양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유치하는 걸 한번 넣어 달라. 그래서 지난번 3차 정상회담에 그 의제가 들어간 겁니다.

이성훈: 지금 내막을, 비밀을 공개하셨네요.

박원순: 그럼요. 처음부터 제 아이디어고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남북이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났는데, 물론 이 분은 어느 도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죠. 왜냐 하면 여러 도시들 간에 유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2032년에는 서울평양 올림픽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금석, 초석을 다졌다면 아마도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은 이제 평창의 완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게 그냥 스포츠의 제전이거나 아니면 물리적 스포츠의 시설들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서울은 이미 내년에 전국체전도 열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들은 이미 대부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올림픽의 정신인 평화를 이 한반도에 정착시킬 거냐. 또 한반도에 촉발된 평화를 우리가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갈등관계를 가져왔던 일본, 중국, 한국, 동북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어떻게 넓힐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처음에는 당시 산업에 중요했던 석탄이나 석유 자원의 공동체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초국가적 동맹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쟁으로 따지면 유럽이 훨씬 더 우리보다 심각한 전쟁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해와 평화의 대륙을 만들었듯이 아시아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런 평화를 우리가 쌓아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조효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유엔 평화대학과 같은 아이디어도 유치를 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NGO와 시민사회에서 이런 합의를 모아주시면 서울시는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재정과 스페이스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엔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재정적 고민과 호스트하는 쪽의 준비만 되면 사실 타이틀을 얻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을, 더군다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자리로 생각하고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훈: 최영애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연설을 들었는데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역사를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되시면서 세 번째 다시 인권 쪽으로 일하시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최영애: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될 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이 될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인권위원장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역사적이고 또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까 조효제 선생님이 하신 인권의 지역화, 그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인권이 굉장히 추상적 개념 속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되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권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말해지고 이래야 되는 시점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동기를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인권위원회 2001년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외국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했었어요.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굉장히 미흡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도 있고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와 진솔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에 캐나다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타와에 있는 인권위원회가 2015년 보수정부 시절에 200명의 규모에서 40명으로 규모가 줄었던 거예요. 그나마 없어질 뻔했던 기관을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버텨서 살려낸 거예요.

이성훈: 지금 캐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최영애: 예.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성훈: 충격적이네요.

최영애: 제가 2001년에 호주에 갔을 때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200명의 인권위원회가 100명으로 줄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서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정부조직은 한 5% 정도 조직 축소가 되는 와중에 22%나 조직 축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려면 정말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인권기구들 간의 정보 교류와 연대와 이게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조효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국제 시민사회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하자는 제안처럼 인권기구들끼리 서로가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되고 재정적 지원제도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 예산이 좀 많이 늘었나요?

최영애: 제가 왔더니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내후년 예산에 대해 추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훈: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서 서울시랑 같이 인권평화 분야의 교류 네트워크에 많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아시아 관련 큰 행사가 2개가, 서울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라고 5년마다 하는 행사가 크게 열린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최영애 위원장님이 홍콩 갔다 와서 내신 보도자료 보니까 내년에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총회를 한국에서 한다고 하시더군요. 큰 회의가 2개 열리거든요. 그런데 한-아세안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님 그 당시 특사로 갔다 오셨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아세안에 계속 관심을 보이셨고요. 이게 제가 앞에 했던 질문과 연관이 되는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는 당연

히 참여해야겠지만, 어떻게 이런 모멘텀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권을 좀 더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내년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유치할 생각이신지. 위원장님.

최영애: 사실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되자마자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인권기구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거기가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 중에서는 굉장히 센 곳입니다. 역사도 깊고, 거기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총회를 어디서 할 거냐 했을 때 사실 국가들간에 경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투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한국 광화문에서의 촛불의 그 경험과 민주화와 인권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 그리고 아시아지역, 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의 어떤 역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회의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NGO들도 같이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전국에 지자체 인권협의회가 있거든요. 이 분들도 참여를 함께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성훈: 그러면 내년 그 회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일종의 인권 의제를, 미래 인권 의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네요? 아주 멋진 회의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르실 텐데 제가 90년대 초반에 논문을 검색하다가 박원순이라는 이름이 영어 논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법 공부하실 때 논문 쓰셨던 것 같은데 제목이 뭐냐 하면 아시아지역의 인권 레짐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면 벌써 30년 전 이미 그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아에서 어떻게 유럽처럼 우리도 지역 차원에서 인권을 증진하는 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원순: 옛날 얘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를 통해 아예 사법기능까지 대륙 전체에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권기구, 그러니까 범지역적 인권기구들이 사실 미주에도 있고 아랍에도 있고. 물론 기능이 유럽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는데, 아시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기능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어떤 공동의 장이랄까, 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과 또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이러한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다면 저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하나, 회의와 관련한 거라면 아이디어를 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보스 포럼은 주로 기업 쪽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대신 세계사회포럼이라는 것은 브라질의 포트알레그로에서도 열렸던 것인데, 보다 기층 민중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모임인데, 그런 모임을 저는 서울에서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사회포럼이 지금은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고 하던데, 아무튼 유치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게 되면 아시아지역에서도 그런 걸 지속적으로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효제 교수님 말씀처럼 만나는 것 자체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고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노란 카드를 받았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효제 교수님도 책도 많이 쓰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반드시 학자로서 또는 인권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효제: 감사합니다. 재작년에 조용환 변호사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인권법학회하고 정진성 교수님이 회장을 하신 한국인권학회가 함께 『인권연구』라는 공동학술지를 창간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희귀한 일에 속하지요. 제가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한국의 다양한 인권 관련 연구들을 한 자리에 집대성하고, 인권연구와 인권운동 간의 건설적 협력 관계를 설정해 보는 꿈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님도 인권변호사 시절에 『역사비평』 학술지를 오래 발간하셔서 잘 아실 텐데, 저희들도 그런 모델을 머릿속에 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 나오고 나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책과 함께 구독신청서를 보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 학문의 지성적인 논의와 운동의 비판적인 움직임이 서로 자극을 주면서,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좋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시민들의 아카데믹한 성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시아 각국의 서점에 가서 살펴보면 한국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과 욕구가 높은 한국 대중들의 성향을 인권학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용하고 그런 것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운동과 대중들의 관심을 이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 이게 꿈입니다.

이성훈: 그런데 국내에서는 논의가 많은데 해외에서는 사실 거의 모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다 한국어로 돼 있고 영어로 된 저널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한국 굉장히 변화가 빠르는데 소개 안 된다는 그 지체현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조효제: 지금 말씀하신 점과 관련하여 어떤 공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유산이나 전통에 비해서 바깥에 알려진 게 굉장히 적었지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배워 외국어를 통해 국제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외국에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더 한국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학이나 여러 렌즈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아져서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흐름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사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졌다, 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훈: 게다가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부담 없이 구글링 돌리면 한글 글들이 바로 번역돼서 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 그것도 나름대로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인권적 의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담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최영애: 이걸 꼭 하고 싶다 이런 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랬는

데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틀, 그건 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법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고.. 어쨌든 확실하게 이번에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임기 중의 소망에 들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 임기가 끝나기 전 차별금지법이 정말 실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온 사회가, 온 영역이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끝없는 설명과 설득에 그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이번에 혐오와 차별을 캐나다에서 다루는 방식을 관찰했는데요, 이걸 보러 간 곳 중에 Church Street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LGBT 단체가 있고, 그 단체의 거리 자체가 전체가 성소수자 거리인데요. 횡단보도도 무지개, 유명한 은행의 간판도 전부 다 무지개.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이 교회 거리, Church Street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다가왔어요. 기독교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기독교로, 한국 사회가 그런 쪽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일동 박수】

이성훈: 고맙습니다. 큰 포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3선이시고 아직 임기가 몇 년 남으셨잖아요. 이걸 내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하나는 해결하겠다, 이거 안 하면 진짜 내가 후회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 보지요.

박원순: 저도 그렇게 분명하게 한두 가지만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늘 “시민이 시

장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협치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영애 위원장님이 계셨던 서울시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또 인권옴부즈맨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고착돼서. 저는 서울시장을 세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다음에 네 번째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많은 NGO나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그런 제도와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늘 반영되고 그래서 인권의 감수성이 높아지는 그런 도시로 여전히 남게 만드는 것. 이게 저는 저의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훈: 감사합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지만 약속대로 여기서 접어야 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70년 전, 25년 전의 비엔나와 파리,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있죠? 공식 기념식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리의 인권 헌신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자리에 모시기 정말 어려운 세 분을 특별히 모시고 이야기들을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멀리서 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